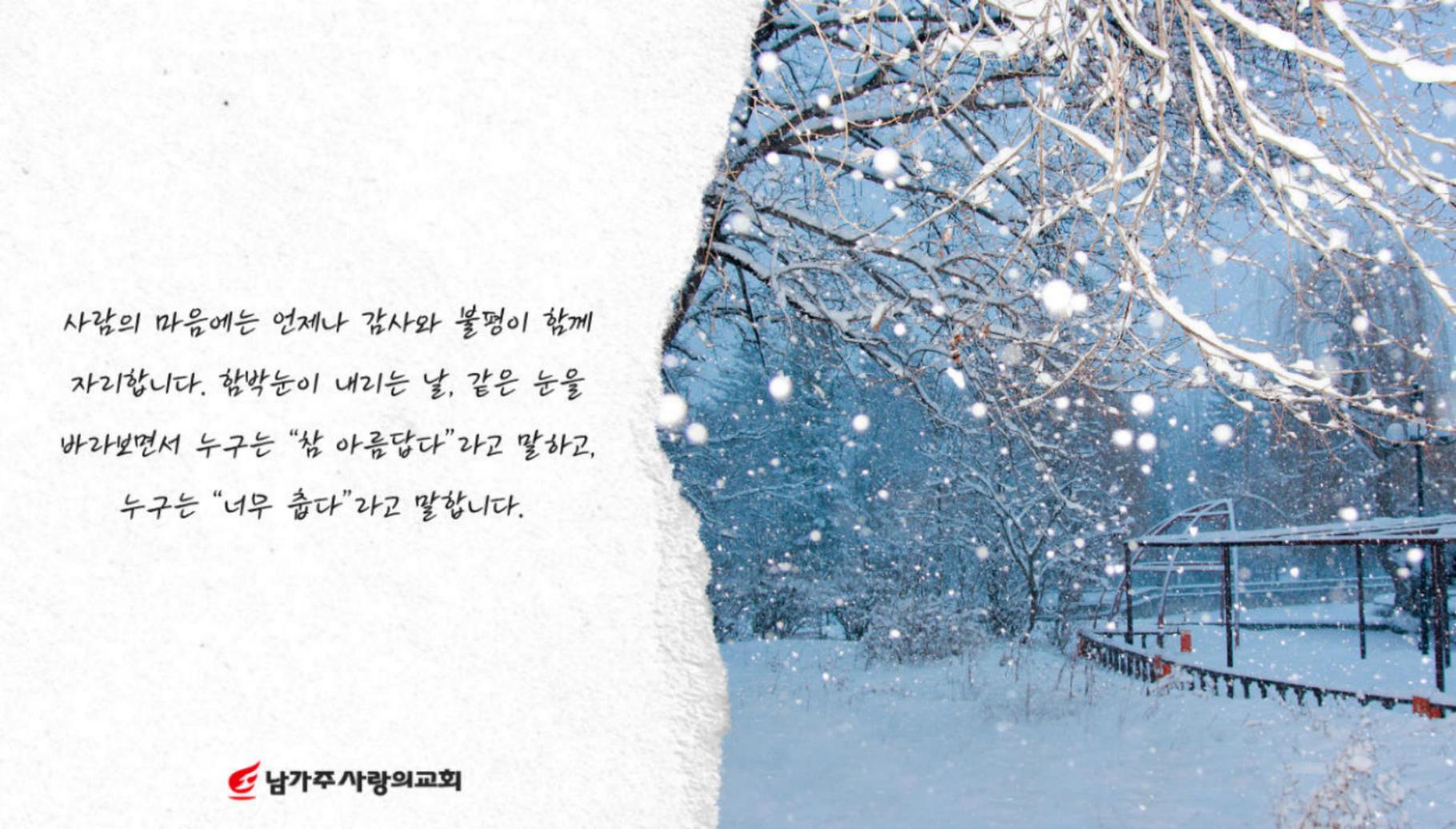


사 랑 의 목 짱

WEEKLY LOVE COLUMN

“감사-인생을 바꾸는 기적”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감사와 불평이 함께
자리합니다. 함박눈이 내리는 날, 같은 눈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너무 춥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마음에서 감사라는 보화를,
또 누군가는 불평이라는 돌멩이를 꺼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것에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OMPLAINTS

그렇다면 참된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ATTITUDE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한 연세대 교수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마디만 잘해도 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때 몸과 마음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흐르며
회복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참된 평안을 줍니다.

억만장자 록펠러는 인생의 정점에서 불치병을
판정받고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평안,
그것이 바로 감사와 행복이다.” 부와 명예가
마음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평범한 하루에서도
특별함을 발견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 가정에 평안이 흐르고,
교회 공동체가 감사를 나눌 때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불가능의 벽을 깨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을 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감사가 닫힌 옥문을 열고 묶인 사슬을
풀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FAITH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며,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감사는 닫힌 마음을
열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평범한 인생을
새롭게 빚어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감사가 큰 축복을 부르고,
평범한 하루가 기적의 날로 바뀝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힘이고,
인생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4)

